자기 몸속에 세상 밝히는 길 있어

☞ 19면에서 계속

때문에 밤늦게까지 신문을 만들어야 했고, 새벽에 집에 와서는 거의 뜬눈으로 긴장감 때문에 밤을 샜고, 새벽밥 조금 먹고 이렇게 나와 뛰는 저를 처는 완강히 말렸습니다. 무슨 일이 나면 어찌 하느냐면서. 이런 처를 3시간 반 안에는 들어올 거라고 다독이며 되돌려 보내고 이 결전에 임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눈 때문에 장거리 연습을 한차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바쁘게 구르다가 출전했는데 그렇게 저는 오히려 제 자신과 극명하게 만나는 이 기쁜 상황을 더욱 그리며 전의를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신묘한, 기막힌 재주를 가진 주인공은 저를 일어 설 수 있게 했습니다. 한 발을 떼어 놓으려는 순간 또 쥐가 나며 두 다리가 굳어지면서 또 넘어졌습니다. 응급차에 타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스님을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극한 순간에 본 주인공

극한에서의 고통과 울부짖음은 오로지 한 곳으로만 정신을 귀일시킬 수 있는 가장 순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찾고자 하는 이에게는 가장 괴로움을 주면서도 그로부터 가장 완전한 정신의 열락에 맞닿을 수 있기에 석가부처님은 6년의 설산고행을 자청하셨고, 우리 스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을 깊은 산 속에서 찾아 헤매오신 그 뜻을 기리며 저는 뜨거운 눈물 범벅이 되어 발걸음을 떼고 또 옮겨보고 또 걸어보았습니다. 29킬로미터쯤에서 다시 엄청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습니다. 또 핀으로 마구 찔렀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너가 해. 그냥 버렸습니다. 30킬로 측정매트를 뒤뚱거리며 밟고 지났습니다. 이 때 이미 세시간 반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가 메인 스타디움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뛰어 들어올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스님 법문은 지금쯤 끝났을 거야.

이 아픔과 대결하느라 스님의 법문을 한마디도 알아듣질 못했으니 너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지껄이며 무심으로 세곡동 네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선생님 지금 몇 시나 됐습니까?" 하는 목소리가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인데 온 얼굴이 크게 이지러져 있어서 큰 중상을 입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한 시 반이요." 왼쪽 무릎 인대가 늘어나서 허벅지를 들어올리기조차 고통스러운 환자였지만 아! 부처님이 또, 주인공의 화신이로구나. 작년에도 삼십 오 킬로미터 지점에서부터 몹시 힘들어하는 사람을 제가 격려해 주면서 그 덕택으로 오히려 제법 좋은 성적으로 골인할 수 있었는데 올해 또 저 젊은 사람이 주인공이 무엇이며 어디,있나를 나한테 보이러 왔구나. 사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 서로 말을 건네고 서로 힘을 실어 주다 보면 도움 받고 건져지고 되살아나는 쪽은 오히려 제 스스로임을 언제나 느끼고 고마워해 온 저로서 부처님은 제 시간에 제대로 나타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꼭 완주하실 거지요. 교수님이시군요. 제가 아까 선생님이라고 제대로 불렀네요.

이렇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서로 격려하며 4시간을 넘긴 사이에 이제는 교통통제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쌩쌩 달리는 차들에 쫓겨서 인도로 올라와서 뛰어야 하는 판이었지요. 15센티미터의 인도 턱에 오를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던지요. 그리고 신호등의 제약까지 받아야 했기에 수서 인터체인지를 지나서부터는 그 아까운 시간에도 멈춰서야 하고 네거리에서는 사정하면서 차들의 흐름을 막아가면서 절뚝이며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얼굴은 우스울 정도로 구겨진 채로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잠실 메인스타디움에 들어왔습니다. 42.195킬로미터. 5시간 26분. 제가 마라톤을 해 본 뒤로 가장 나쁜 성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가마에 들어가 보려고 마라톤이란 방법을 써본 뒤로 가장 공부를 제대로 한 날의 기록입니다.

스님! 지금까지 찾아 왔습니다. 참으로 애타게 늘 설하시던 그 법문을 뻔하게 아는 척하는 제가 미워서 이 방법 저 수단 다 해보고 있었습니다. 불룩불룩 기어다니는 근육의 경련 덩어리를 핀으로 마구 찔러서 풀어주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또 저를 선생님하고 부르며 시간을 물으며 다가 왔던 그 젊은이가 바로 스님이며 주인공의 화신이며 한마음의 응신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놓아 흐느끼며 스님을 불렀습니다. 달리던 그 산야의 길이 찾으며 애타게 부르며 뛰기에는 오히려 십상이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듣는 사람이 없었기에 부끄럽지도 않았고요. 찾는 임 어디 있나 했더니 찾는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거울로는 온갖 것을 다 비춰보지만은 그 거울 자체는 거울이 안 비춰줍니다. 마음으로 만물 만사를 다 보고 알아도 자기 마음 자체는 제 마음이 볼 수 없지요. 그러니 아무리 한들 어디 가서 찾고 볼 수나 있겠습니까? 스님께서 가르치시는 불법이 너무나 쉬워서 저희들은 오히려 더 못미더워 하고 있지요. 찾는 자기 속에 진리의 당체가 그대로인체 여여한데 저희들은 신기하고 오묘하고 위대한 어떤 것이 꼭 있을 것이리라고 지레 믿고 달려드는 습에 오랜 세월동안 젖어 왔으며 또 그리도 큰 것을 바깥으로만 찾으려는 병폐 깊숙이 앓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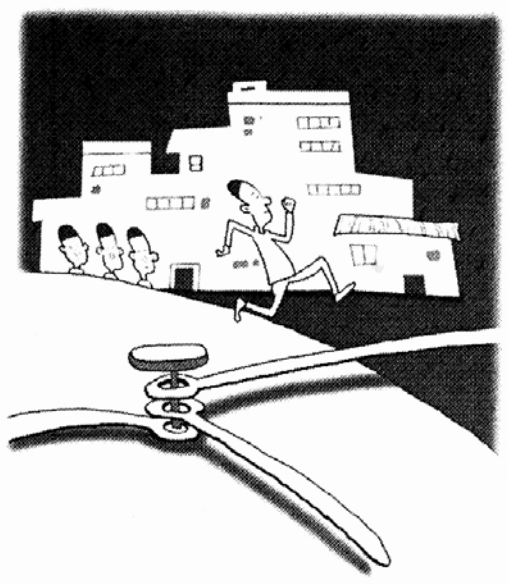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육신 아닌 내면 불성에 의지하라

자기뿌리 믿어 모든곳에 써먹도록

공하니 공한 곳에 놔라

제가 불법이 적혀 있는 몇 권의 경을 읽어보았습니다. 답은 모두 하나. 모두가 공하다였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이 경에서 저 경전에서 모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절에서 깨쳐들은 한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다. 공함으로 공한 곳에 놓아라. 공한 곳에 몰록 쓸어모아 나아가면 그냥 스위치 올리듯이 전기가 통한다. 일체가 공하기에 그냥 다 통한다. 모든 것이 공하기에 성분이 다 똑같기에 그렇다. 마음만 일으키면 그냥 그대로이다. 이 말은 진리이다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 자기가 자기의 뿌리를 믿어서 모든 곳에 다 써먹어라. 이 부처를 활용하는 묘용은 제가 탐구해 본 바 어느 경전에도, 어느 선지식의 가르침에도 본 바 없고 들은 바 없습니다.

저희들 이제 눈뜨고 있습니다. 님을 그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걸음마 하려 합니다. 이 거룩하신 진리의 법문을 온 누리에 펴지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감로의 법문에 목축이고 하루 하루의 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싱그럽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 스님의 가르침이 전파되는데 머리 한오락 만큼이라도 이 몸뚱이가 쓰여질 수 있다면 더 없는 큰 기쁨, 참으로 다함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부처임을 알려하면, 이 생에서 닦아서 세세생생 쓰려 하면 지금 이 자리 생각하는 이 놈이 바로 부처요, 찾는 님인 것을, 믿으면 부처요 못 믿으면 중생인 것을….

▲스님: 화엄경에도 그렇지만 모든 경전에도 기둥마다 줄기마다 연꽃이 피고 향기가 난다고 그랬소. 그런데 그 줄기가 누구의 줄기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혈관의 줄기였소. 그 말대로 그렇게 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람의 혈관 줄기에 연꽃이 피었소. 그렇게 피더라고. 그러니 길은 딴 데 없어. 자기의 몸이 이 세상의 길이고, 이 세상의 그릇이고 이 세상의 색색가지가 한데 합쳐진 공식 바로 그머리야. 향내가 위아래서 나고 꽃이 피어서 휘날릴 때 남들이 꽃을 못 보든, 보든 그 꽃을 받으면은 영원히 이 세상에 벗어 날,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고 벗어나서 먹는다 입는다 싸우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건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그러니 정말 앞으로 귀신 털을, 귀신 씨를 아주 잘 길러서, 지금 귀신 털을 가진 소린데 뭐. 잘 길러요. 하하하.

믿으면 부처 못믿어 중생

▲질문자 2: 요사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깐 과연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 생각을 하다 보니깐 과연 우리가 그동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업식이나 아니면은 이 몸이라든지 나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 세상이라든지 인연업보 등에 얽매여서 사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구나. 우선의 목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출세도 아니고 달리 얘기하면 진짜 인간이 되는 그런 공부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름하여 저 나름대로는 이것이 출인간이구나, 아니면 진짜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진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공부를 하는 과정은 스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 공한 자리에다 놓고서 몸과 나라고 하는 의식도 놓고 인연,업보도 다 놓고 완전히 주인공과 계합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다 벗어났을 때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벗어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떠한 자리이고 육신을 벗어난 자리는 어떨 것인가 라고 하면서 물론 차원과 각자의 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한 자리는 어떠한 것인지요.

▲스님: 물론 높다고 하면 높은 자리가 따로 있죠. 또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산다. 이런 것도 보살의 한 등이차적인 문제죠. 또 삼차 중생으로서 아주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느냐. 남한테 악한 짓 안하고 사느냐. 중생으로서의 그냥 삶을 산다는 것이 삼차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삼차적으로 사는 거는 좋은데 삼차적으로 살다가 보면은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다시 선하게 살아도 악한 것이 거기에 또 끼어 들어서 선한 것도 악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다면 우리들의 몸과 같이 이렇게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다가도 구제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게 화해서 보여서 건져주고 가다가 없어지면 또 그만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혹성이고 저 혹성이고 따로 없지. 그러니깐 만법을 그 공법으로서 그냥 이룩하느냐, 그냥 법으로 요것 조것 따져서 놓느냐. 그러면 이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지. 그래서 정말 보살의 행적이란 여러분이 볼 수도 없거니와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본다 하더라도 그게 뭘 하는지 모를 거고. 그러니깐 여러분은 24시간 일했다고 그러는데 일한 게 아니라 그거 한 찰나에 그런 보살이 있다면 벌써 다른 혹성에도 한 찰나에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깐 그걸 잘났다 못 났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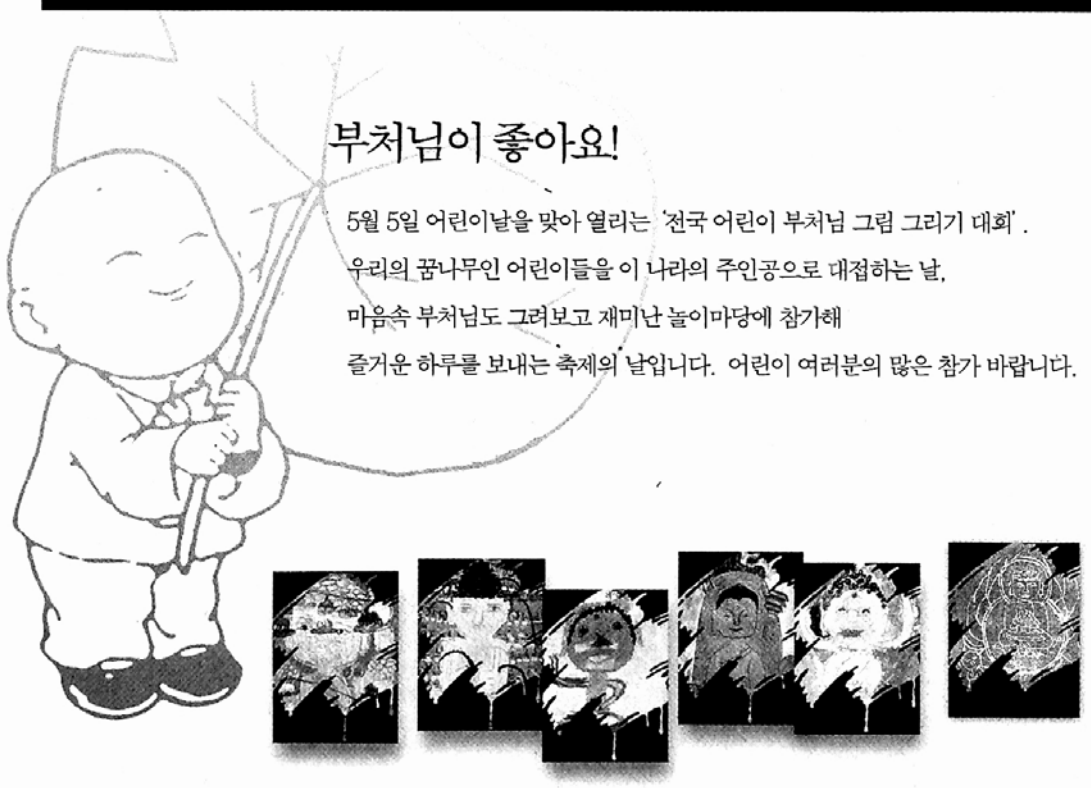
그리고 내가 항상 즐거우면 다 즐겁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고 사는 거. 모두가 평등하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 살려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말고 남을 섭섭하게 하지말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자기가 못났으면 자기가 못난 대로 똑같이 생각하라 이거야. 그러면 쉬울 거 아니야. 나와 같이 못났구나 하고. 전자에 내가 못났을 때 나하고 똑같구나 하고 생각하면 아예 남을 얕보지도 않게 되잖아. 사실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기어다니는 벌레도 그게 벌레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사람도 사람으로만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 또는 이 집에서 살다가 저 집으로 가서 태어나고 저 집에 갔다 이 집으로 태어나고, 딴 나라에 가서 태어나고 이러거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한 번 생각을 잘 하면은 한 우물 안을 아주 깨끗이 정수를 만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깐 그저 살기가 좀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잘 사세요. 식구한테 욕하지 마시고,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잘하든 못하든 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또 살기에도 편리하지만 요 다음에 재생이 될 때 참 갸륵하게 태어나실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하신다면 그 때 태어나지 않고도 이 세상을 아니, 우주 전체를 한 찰나에 돌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저 어디 경치 좋은 돌이 있으면 그냥 돌을 집을 삼아서 들어 가셔서 구경 다 하고 또 딴 데로 가시고 아!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지난 4월 1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월간「불광」· 목아불교박물관 · 법주사 주최 제 7 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부처님이 좋아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열리는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날,
마음속 부처님도 그려보고 재미난 놀이마당에 참가해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축제의 날입니다.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일 시: 2001년 5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 소: 속리산 법주사 (043-543-3615)
대 상: 전국의 어린이 (만 5세 이상 유치원생, 초등학생 1~6학년)
참 가 비: 5,000원 (10명 이상 단체 참가시 1인당 3,000원, 작품 우편 응모시 작품과 5,000원 우표 동봉)
준 비 물: 참가 부문별 미술도구(크레파스, 그림물감, 조각도, 화판 등), 모자 착용, 돗자리, 도시락
특 전: 참가자 전원 기념 T셔츠 등 선물 증정(행사 당일 참가자및 동반자법주사 무료입장)
주 최: 월간 불광, 목아불교박물관, 법주사
참가부문: 크레파스화 부문 - 유치원 · 초등 1,2학년 | 수채화 부문 - 초등 3,4학년 | 판화 부문 - 초등 5,6학년
참가방법: 하나 5월 5일 당일 행사 참가 둘 작품(우편) 공모 참가
(응모작품 규격 : 각 부문 8절 도화지 사용, 판화부문 1도 인쇄, 응모기간 : 4월 1일~4월 25일 우편 응모작품 뒷면에 소속사찰 어린이법회, 학교, 학년, 반, 성명, 성별, 집주소, 전화번호 명기)
시 상: 우뚝으뜸상 (1명, 상장 및 상품) | 각 학년별 으뜸상 (6명, 상장 및 부상)
각 학년별 버금상 (6명, 상장 및 부상) | 유치부 으뜸상 (1명, 상장 및 부상)
유치부 버금상 (1명, 상장 및 부상) | 보람상 (500명, 상장 및 상품) | 한마음상 (3곳, 상장 및 상품)
발표 및 시상: 행사 당일 참가작과 우편 응모 참가작 모두 5월 5일 행사 당일 발표 및 시상
(우뚝으뜸상과 각 학년별 으뜸상, 버금상 명단은 월간 불광 6월호에 게재하며, 보람상 이상 수상자 전원을 대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림 그리기와 함께 펼쳐지는 올해의 놀이마당 - 출발 보리팀!
· 봉망치 서바이벌(볼풀) · 월리엉텔 따라잡기(활쏘기)
· 꼬마자전거 타기 · 릴레이 덩크슛 · 림보댄스 · 통나무 밀어내기

참가신청 및 문의
월간「불광」 02) 420-3200 | 목아불교박물관 031) 885-9952~4 | 법주사 043) 543-3615 | 선재이벤트 0502) 317-2555

후원 :문화관광부, 봉축위원회, 보은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보은교육청, 한국박물관협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불교방송, 학교법인 동국학원, 불광사 불광법회, (재)보덕학회 협찬 : 롯데월드, 롯데칠성음료(주), 짐경이 우리옷(주), 생활한복 짱아, 대한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월간「불교」, 월간「금강」, 중앙승가대신문사